

불교 행사, 사진으로 만나다

한국불교사진협, 봉축기념 회원전 개최

5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서울·대구서 연달아 전시

불교계에서는 1년 동안 많은 행사들이 열린다. 이런 행사들의 일면을 렌즈에 담아낸 전시회가 열린다.

한국불교사진협회(회장 전제우)는 오는 5월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 법륜사 불일미술관에서 '불교행사'를 주제로 제 21회 회원전을 연다.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5전 시실로 옮겨 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는 불교행사를 주제로 한 협회 회원 사진작품 56점이 전시된다.

이들 사진들은 전국 사찰에서 열린 불상 점안, 범성도 요장, 다비식 등 법회와 행사들을 담았다.

전제우 한국불교사진협회장은 "주제가 생각보다 어려웠고, 단체 출사만으로는 행사에 맞출 수가 없어 회원 개인 시간을 쪼개서 전시회에 참여해야 했다"면서 "우리 회원들의 작은 노력이 한국불교 포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시회에서는 제10회 청소년 불교사진 공모전 수상작들을 만날 수 있다. 한국불교사진협회는 청소년 포교 일환으로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010)6365-5065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사진협회 방종열 대구지회 회원의 작품 '풍등'

한국 찬불동요를 '한 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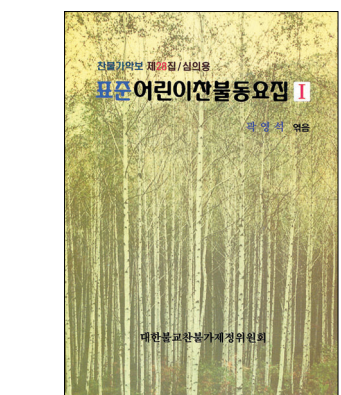
찬불가제정위, 표준곡집 1권 발행

5개 분야 295곡 총망라

어린이 찬불동요를 망라한 악보집이 발간됐다.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원 산하 대한불교찬불가제정위원회(위원장 박이재, 이하 찬불가제정위)는 "표준어린이찬불동요곡집 제1권을 발행했으며 무상으로 전국 사찰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연차적으로 총 4권이 발행될 찬불동요집 가운데 첫 번째인 '표준어린이찬불동요곡집'에는 295곡이 수록됐다. 의식동요곡과 창작동요, 인성동요, 유아동요, 생활동요 등 5개 분야에서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활용할 수 있는 곡들을 선별했다.

1982년 5월 진영출판사를 통해 결집된 '어린이찬불가' 222편 중 23곡을 다시 담았으며, 의식용 찬불가는 새로 창작했다. 같은 소재의 경우 원로 작가 작품을 우선 수록했다. 불교방송 창작찬불동요제와 국악동요제, MBC, KBS 창작동요제, 초록동요제 등 각종 동요제 입상곡을 비롯해 교과서 수록곡 등



작사가나 작곡가가 보내준 원고를 중심으로 교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의해 실었다. 특히 유치원 누리과정 교과내용 개편에 따라 단원별로 유아동요 16편을 개발해 수록했다. 대한민국찬불가요 대상 수상곡 중 동요도 악보와 가사가 함께 게재했다.

'표준어린이찬불동요곡집'은 4월15일부터 일선 포교단체와 사찰에 배부 중이며 이메일(kbm0747@hanmail.net)로 신청인 주소와 연락처를 적어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02)425-3002 신성민 기자

절집 천정엔 화엄세계가 담겼다

노재학 작가, '사찰천정, 화엄의 빛' 개인전

사찰 건축물에는 많은 문양들이 등장한다. 문양들은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그 안에는 진리로 가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 이는 사찰 천정도 예외는 아니다. 고개를 현기증이 날 정도로 한껏 들어야 볼 수 있는 다양한 문양들에서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을 만난다.

본지 연재를 통해 사찰의 다양한 문양과 성보들의 의미를 조명해 온 노재학 불교사진작가는 오랫동안 '사찰 천정'에 주목해왔다.

그는 2003년부터 10여 년간 전국의 절집을 다니며 사찰천정에 보장한 문양세계를 카메라 렌즈에 담아 왔다. 이를 통해 작가는 확고한 신념이 생겼다. 실제로 노재학 작가는 사찰 '천장(天障)'이 아니라, '천정(天井)'이라고 개념 짓는다. 하늘을 차단하고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하늘세계를 바라보는 통로인 우물(천정:天井)로 여긴 까닭이다.

수많은 문양을 만나고 천착한 결과물은 본지의 연재를 통해 소개됐고, 이를 다시 정리해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오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 서울 법륜사 불일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는 통도사 대웅전, 범어사 대웅전, 봉정사 대웅전, 천은사 극락보전, 내소사 대웅보전 등 20여 전통사찰의 불전건물 천정의 문양세계를 담은 작품 30여 점이 전시된다.

노재학 작가가 작품을 촬영하고 의미를 천착하는 과정은 곧 '인내'였다. 작품을 팔아 수백 차례 사찰을 찾았고, 모

든 문양들을 속속들이 파악했다. 이를 통해 사진작업 순서와 구도, 조리개 값, 셔터속도, 호흡 등을 시뮬레이션 수준으로 몸에 익혀 두었다.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재빨리 포착했다. 천정의 문양세계를 해독하기 위해 부산시립도서관을 드나들며 불교경전과 미술사학, 건축, 미학론의 책들을 탐독했다.

'사찰천정, 화엄의 빛'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예경과 공양의 세계 △불보살의 세계 △화엄의 세계 △생명력, 근원의 빛 등 4부로 구성된다.

본지 연재작품 30여 점 전시

5월 4~8일간 불일미술관서

10년동안 사찰 천정만 촬영

수많은 문양들의 의미 천착

"천정, 광명편조의 화엄 세계"

모두 사찰 천정의 문양 특징들을 분류한 것이다. 천정의 비천들은 법열(法悅)의 세계를 보여주며, 한자와 범어의 상징문자를 새겨넣은 것은 부처와 보살, 진리의 가르침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하학적 패턴으로 대칭과 자기 유사성을 반복하는 부분은 만유가 인드라망으로 이어지는 화엄세계가 머리 위로 펼쳐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사찰 천정은 '화엄'으로 잠입된 곳이다. 노재학 작가는 "사찰 천정은 조형에



통도사 대웅전 천정(사진 위)과 사찰 천정의 다양한 세부 문양들(사진 아래) 무심코 지나칠 법한 이들 문양들은 불보살에 대한 예경과 진리의 가르침, 이를 모두 아우르는 화엄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술가들에 의해 영산회상의 공간으로, 극락정토로, 갠지스 강 모래알만큼 많은 중중무진의 삼천대천세계의 불국토로 잠입됐다"면서 "본질적으로 절집천정은 진리법이 구현된 광명편조의 화엄의 세계다. 단지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조형언어를 취했을 따름이다. 천정에 또 하나의 팔만대장장이 갈무리 돼있는 것"이

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에 대해 불일미술관은 "작가는 10년 간의 작업을 통해 천정 세계를 대중들이 낱알이 체할 수 있도록 지상으로 내렸다"면서 "절집천정의 문양세계에 대한 최초의 작업이며, 전시회로 의미가 각별하다"고 밝혔다. (02)733-5322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렌즈로 잡아낸 수행자들의 면면

하지권 작가, '절집- 수행자' 사진전

깨우침을 향한 수행자의 치열한 삶을 스토리로 담은 특별한 사진전이 열린다.

16년동안 카메라에 사찰을 담아온 하지권 불자 사진작가는 오는 5월 4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탐골미술관에서 3번째 개인전 '절집, 두 번째 이야기-수행자'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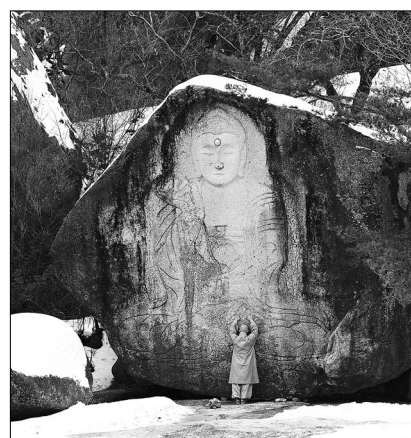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서는 하지권 작가가 그간 마음에 담아두었던 사진 작품 34점을 선별해 대중에게 선보인다.

지난해 호평을 받았던 '절집1' 전시가 풍경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전시는 수행자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스토리가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34점의 작품들은 스물일곱 개의 큰 흐름으로 구성·전시된다. 수행의 결의를 보이는 법고의 울림으로 시작해, 수행자가 마침내 마주한 불법의 광대무변함, 즉 화엄을 아름다운 꽃으로 표현했다. 이어 수행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 열반으로 끝을 맺는 수행자의 삶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큰 울림을 전한다.

탐골미술관의 기획초대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한 봉축행사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전시장을 '법고가 울리고 꽃이 피고 수행자의 삶이 이어지는 법당이자 절집'으로 구성했다.

하지권 작가는 "눈에 보이는 것"이면에 있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깨닫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면서 "카메



하지권 작가의 작품 '봉암사'. 하지권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서 수행자들의 면면을 렌즈에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5월 4~27일 탐골미술관서 개최

수행자 일상 담은 30여 점 전시

라는 무거운 족비와도 같다. 앞으로도 우리 땅, 우리 산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 대해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최유스님은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자비와 보살행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면서 "고즈넉한 산사의 모습과 스님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탐골미술관은 어르신부터 어린이까지 모든 세대가 미술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열린 전시문화공간'을 지향하는 미술관으로, 2013년 5월 서울노인복지센터 내에 개관한 이래 지역사회 및 다양한 세대에 열려있는 미술 공간으로 기능해오고 있다. (02)6220-8553 신성민 기자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충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은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왜? 울금(강황)과 Phytoncide(피톤치드, 편백수)인가!

「대리점 및 소매 점포/사찰담배품 창업주 모집, 불향을 타게 할 참신한 제품입니다.

불 도량에 알맞는 품격있는 제품입니다.

울금365는 울금, 황금, 미강으로 구성되어 있어 잦은 음주와 스트레스, 음식의 과잉섭취, 각종 공해에 찌는 현대인에게 꼭 권장할 만한 건강식품입니다.

울금 박사가 만들었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을 고려했습니다. 3box 6병(3개월 분) = 89,000원 1box 2병(1개월 분) = 39,000원

• 울금과 강황을 이용한 식품일체(동분야 국내최고 권위자) 피톤치드, 편백수(국내 최대생산라인 확보, 성분타의 추종을 불허함) 약용식물을 이용한 건강식품 다수(특허등록) 당찬하루, 필자보(남자의 팔자), 울금365 등

100% 천연편백수 산림욕장을 실내로!

이토피, 피부미용, 세집중추근, 천연방향제, 의류 및 침구류, 신발장, 화장실등의 향균, 탈취

70ml(휴대용)×1병 = 3,900원 / 6병×1box = 21,600원
200ml(가정용)×1병 = 8,000원 / 2병×1box = 15,000원
500ml(대용량)×1병 = 15,600원

오랜 전통과 기술이 축적된 산학협력 및 정부지원 업체입니다.

Sanchon Herb NAVER 산촌허브 검색

문의전화 T. 055) 632-2233 F. 055) 635-6500
H. 010-3215-3998 www.sanchonherb.co.kr
농협 351-0633-0485-13 산촌허브(주)

현대불교신문 구독 안내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울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